

2017년 하반기 · 2018년 9급 시험대비 국어 모의고사  
이유진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 맞춤법에 맞지 않게 표기된 단어로만 짝지어진 것은?

- ① 섭섭찮다, 언덕빼기, 머리방
- ② 뭉기적거리다, 옛되다, 우유병
- ③ 뇌졸중, 널판지, 반대말
- ④ 절대절명, 울귀먹다, 머릿기름

2.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년 겨울, ‘앤젤라 더크워스(Angela Duckworth)’의 강연을 듣게 되었다. 그녀가 강조한 것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는 능력인 ㉠그릿(Grit)이었다. 특히 그녀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릿을 향상할 수 있으며, 그릿이 높은 사람은 삶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고 역설했다.

짧은 강연은 인상적이었다. 그 후 나는 ㉡그릿에게 빠져들었고 관련 서적을 찾아 읽기도 했다. 지금까지 나는 성공한 사람들의 일화를 들으며 그들을 부러워하기만 했다.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주변의 막연한 충고는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그런데 강연을 통해 그릿의 효과와 그릿 향상 방법에 대해 알게 된 후,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열정을 퍼붓는 사람들의 끈기에 ㉢주목시키게 되면서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려 했던 기타 연습에 다시 몰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소소한 성취감도 느끼며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에 즐겁기도 했다.

- ① ㉠: 호응 관계를 고려해 ‘그릿이라고 주장했다’로 바꾸자.
- ② ㉡: 조사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릿에’로 수정하자.
- ③ ㉢: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므로 ‘주목하게’로 고치자.
- ④ ㉣: 접속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래서’로 바꾸자.

3. 다음 중 표기 방식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東 京      ㉡明 期    ㉢月 良  
동경(서울)      불기      드래

㉣夜 入伊    ㉤遊 行 如 可  
밤드리      노니다가

入良 沙      寢 矣    ㉥晷 昆  
드러샤      자리      보곤

脚 烏 伊      四 是 良 羅  
가르리      네히어라

- ①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4. 다음 문장의 ( ) 안에 들어갈 한자는?

謂學不暇者, ( )暇亦不能學矣

- ① 雖              ② 鮮              ③ 勿              ④ 善

5. 다음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 한용운, 「수(繡)의 비밀」-

- ①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를 통해 화자의 일상적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②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에는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 ③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에는 화자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 ④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에서 수를 놓는 과정에서 화자의 자기 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군.

6. 다음 문장을 배치할 곳으로 가장 적절한 곳은?

과거에 시가(詩歌) 작품들이 노래로 향유되었던 양상에 주목해 보면 구비 문학 적 요소가 의외로 강했다.

① 주로 신라 시대에 향유되었던 향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향찰 문학이다. 문자로 기록되었으므로 당연히 기록 문학에 해당된다. ② 그런데 향가 작품들을 소개하는 『삼국유사』에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식의 서술이 곳곳에 보인다. 고려 때의 문헌인 『균여전』에는 듣고 외우고 읊조리는 방식으로 향유된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③ 물론 창작 단계에서도 향찰로 기록되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향가가 문자가 아닌 음성으로 향유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간접적인 단서도 있다. ④ 궁중에서 공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군신들에 의해 음악으로 향유되었던 고려 속요는 그 뿌리가 대체로 민요에 있었다. 다소 비유기적으로 보이는 시상 전개는 민요 자체에서도 발견될 뿐만 아니라 궁중 음악으로 흘러들어 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구비적 부산물이기도 하다.

7. ㉠와 ㉡의 결합 구조와 유사한 단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어휘	풀이	한자어의 결합 구조	
㉠ 몰상식	상식이 없다	몰(沒) + 상식(常識)	서술어 + 주어
㉡ 탈상식	상식을 벗어나다	탈(脫) + 상식(常識)	서술어 + 목적어

- ① ㉠: 不可能    ㉡: 舊時代
- ② ㉠: 新記錄    ㉡: 反革命
- ③ ㉠: 未開發    ㉡: 小道具
- ④ ㉠: 無意味    ㉡: 超音速

8.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벌에 관한 이론은 곧바로 형벌의 존재 의의와 기능에 관한 이론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형벌을 정하는 양형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형벌의 정당성을 고찰하는 것은 국가의 자의적 형벌권 행사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형벌의 본질이나 정당성에 대한 입장 중 하나가 응보주의이다.

응보주의는 범죄자는 자신의 악행에 대해 마땅히 그 책임을 치르기 위해 형벌의 고통으로 대갚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응보 그 자체가 형벌의 목적이 된다. 형벌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응보주의에 따르면 형벌은 죄를 범한 책임과 일치하므로 형벌은 반드시 범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범죄자의 책임이 아닌 것에 근거한 처벌을 부정한다.

그러나 응보주의는 형벌의 본질이나 기능을 온전히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라는 악행에 대하여 다시 그만큼의 악행으로 대갚음해야 한다는 논리이므로 보복 감정의 발로일 뿐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폭력의 순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형벌의 목적에서 예방을 배제하므로 형벌은 사회 전체 고통의 총량을 증가시키기만 할 뿐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

오늘날 형법학자들은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공리적 목적 없이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순수한 응보주의 관점과 범죄자 개인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 형벌을 부과하는 순수한 예방주의 관점 모두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응보라는 토대를 기반으로 하여 범죄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예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① 형벌의 목적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판단 척도가 달라질 수 있다.
- ② 오늘날 다수의 형법학자들은 형벌을 통해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 형벌의 정당화 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③ 범죄자의 악행에 대해 다시 그만큼의 악행으로 대갚음하는 것을 형벌이라고 본다면 형벌을 통해 사회 전체의 악행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④ 응보를 기반으로 범죄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예방을 고려한다는 견해에서 범죄자의 책임 범위를 설정한 까닭은 국가의 무절제한 형벌권 행사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 9.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설명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은?

- 仁義之兵(인의지병)을 遼左(요좌) | ㉠ 깃스븍니
- 聖孫(성손)이 ㉡ 一怒(일노)하시니 六百年(육백년) 天下(천하) | 洛陽(낙양)에 ㉢ 올므니이다
- 聖宗(성종)을 ㉣ 뉘셔 九泉(구천)에 가려 하시니

- ① ㉠은 현대 국어와는 달리, 선어말 어미 '-술-'을 사용하여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聖孫(성손)'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은 현대 국어와는 달리, 청자를 높이기 위해 '-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서술의 주체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어휘가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 밑줄 친 부분을 고려할 때, 저런 것들과 의미가 다른 것은?

김용택의 「들국」은 임의 부재로 인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도 애상감을 느끼는 내면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즉, 이 시의 화자는 주변의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그것들에서 삶의 슬픔을 느끼는 것이다.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헌다요  
뭐헌다요. 산 아래 /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헌다요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 산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산 아래집 뒤안 /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 안 오는데 뭘 헛짓이다요 / 저런 것들이 다 뭘 소용이다요  
뭘 소용이다요. 어둔 산머리 / 초생달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헌다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 ㉢허연 서리만 끼어 가고  
저 달 금방 저 불면 /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턴디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 이 가을 다 가도록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 뭐헌다요, 뭘 소용이다요

- ① ㉠                      ② ㉡                      ③ ㉢                      ④ ㉣

11. ㉣에 나타난 '치수'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치수는 자신의 마음도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낀다. 많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전신을 맴돌았던 뜨거움은 싸아 소리 내며 가시는 것 같았다. 단련된 쇠붙이와 쇠붙이였다. 싸움터에서 적과 적의 칼이 맞닥뜨린 순간이었다. 쌍방이 혼신의 힘으로 겨루는, 숨결조차 내기 어려운 침묵, 긴장은 두 모자 사이의 공간을 팽팽하게 메운다. 치수는 어머니의 뺨치는 힘이 전보다 가늘어진 것을 느낀다. 대신, 보다 날카로워진 것을 피부로 심장으로 감득한다.

[중략]

“뵈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혼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남의 이목도 그러하거니와 서희에게 어미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두어졌던 윤씨의 눈이 치수에게 쏠린다. 치수는 왜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가, 한번도 생각해본 일이 없는 결혼문제를 어찌 입밖에 냈는가. 치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다.

㉠ “너 생각이 그렇다면 규수를 구해야겠지.”

‘왜 반대하지지 않으십니까, 어머니.’

“그렇지, 서희에게도 어미는 있어야겠구나.”

‘그렇 리 있겠습니까. 서희에게 당치 않는 혹이 하나 생길 뿐이지요. 서희에게는 유순하고 글이나 읽으며 소일할 신랑감이 필요할 뿐이지요.’

- ① 重言復言 ② 厚顏無恥 ③ 表裏不同 ④ 附和雷同

12. 안긴문장의 주어가 안은문장의 주어와 다른데도 주어를 생략하여 어법에 어긋난 문장은?

- ① 주민들은 소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정부 당국으로 요구했다.  
 ②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③ 그는 준비를 완벽히 해 주신 데에 감동받았다.  
 ④ 그가 제시한 방법이 채택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었다.

13.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빛은 진공이 아닌 매질에서 속도가 느려진다. 일상의 매질 중, 굴절률이 가장 큰 반도체에서 빛의 속도가 1/3배로 느려지지만 여전히 빠르다. '양자 메모리'는 빛을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빨라 연구자들이 골치를 앓았다. 전통적 정보처리는 디지털 방식의 0과 1을 만족하는 신호의 세기, 극성 등을 기준으로 삼지만, 양자 메모리는 연속적인 빛을 시간대별로 짧게 토막을 내어 불연속적인 파동의 모임인 '펄스'라는 디지털 정보를 만든다. 그런데 이는 저장하기에 너무 빠르다. 그래서 양자 메모리 과학자들은 인위적으로 빛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시도를 했다.

일단 파장이 780nm인 근적외선 레이저를 매질에 통과시켜 빛의 속도를 초속 17m까지 늦추는 데 성공했다. 빛을 느리게 하는 데 사용한 매질은 루비듐 냉각 원자였고, 이 빛을 '느린 빛'이라고 불렀다. 일반적인 루비듐 원자에 빛을 쏘면 원래 광속에 가까운데, 굴절률을 이용해 속도를 늦춘 것이다. 일반적으로 굴절률은 광속을 특정 매질 안 빛의 속도로 나눈 값이라고 설명한다. 굴절은 빛이 방향을 꺾는 것인데, 이것은 매질에 따른 빛의 속도 차이 때문에 생긴다.

- ① 빛 정보는 펄스라는 연속적인 파동들의 집합이다.
- ② 루비듐 원자는 빛의 속도를 1/3배로 만들 수 있다.
- ③ 일반적으로 광속과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를 통해 빛이 꺾이는 정도를 알 수 있다.
- ④ 양자 메모리는 빛 신호의 세기를 조절하여 전통적 정보 처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다.

#### 14. 다음 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류학자들은 '인간다움'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해명하려 했다. 먼저 제기된 남성-사냥꾼 모델은 인간이 대규모 사냥으로 집단에 식량을 공급하며 인간다워졌다고 한다. 사냥을 위해 직업 보행이 완성되고, 도구와 무기를 생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집단 사냥의 고고학적 증거가 없으며, 사냥보다는 채집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게 밝혀졌다. 결국 이 모델은 남성 중심적 시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안으로 나온 여성-채집자 모델은 초기 인류가 채집에 의한 식물성 식량에 의존하여 채집 활동을 위해 도구가 발명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이를 옆에 끼고 식량을 운반하기 위해 직업 보행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델도 성 분업이 인류 탄생 시작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성별 고정 관념에 빠졌다는 한계가 있다.

식량 획득에 있어서의 성 분업이 일어났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분업 양상이 어떤 이유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설명하려는 유력한 가설은 협동적 부모 식량 공급 모델이다. 먹거리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때 자식의 생존율이 높아져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간다움'이 진화하는 데 있어 어느 한 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기보다는 양성 간의 전략이 상호 결합하여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 ① '인간다움'을 갖추게 된 과정을 단계별로 탐색하였다.
- ② 진화 과정을 분석하여 '인간다움'을 고찰하였다.
- ③ 서로 다른 이론을 대비하여 특정 이론을 부각하였다.

④ 기존 설명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견해를 소개하였다.

15.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는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환율은 물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수출입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외자의 유·출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환율이 외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자율 변동 환율 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나 외부 충격 등에 따른 시장 불안으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시장 개입은 중앙은행에서 외화 자산을 자국 통화와 맞교환하며 매입 또는 매각하는 것이다. 시장 개입을 위한 원화 재원으로는 본원 통화나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 자금이 있으며, 외화 재원은 중앙은행이 보유·운용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과 외국환 평형 기금이 있다. 예를 들어 단기간에 환율이 급락하면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서 원화를 팔며 대표적 기축 통화인 미 달러화를 매입한다. 그렇게 미 달러화의 초과 공급을 흡수하면 환율의 급락을 조절할 수 있다.

- ① 우리나라에서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 ②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원화로는 외환 시장에서 기축 통화를 살 수가 없다.
- ③ 외환 시장이 불안정할 때 중앙은행에서는 인위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
- ④ 외환 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 자금은 미 달러화를 매입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금이다.

16. (가)~(라)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가) 드론은 원격 조종 또는 자율 조종 모드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이다. 주위 비행 환경을 인식해 자율 비행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무선 통신으로 받은 데이터로 비행체를 정밀하게 조작한다. 드론은 응급 환자 이송, 산악에서의 인명 구조, 상품의 배송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기 시작했다.

(나) 드론 중 최근 많이 사용되는 ‘회전익기’는 헬리콥터처럼 프로펠러라 불리는 로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따로 활주로가 필요 없다. 회전익기의 핵심 장치는 로터이다. 로터는 여러 개의 블레이드로 구성되어 주동력 장치인 엔진이나 모터에서 발생하는 회전력으로 회전한다.

(다) 회전익기는 로터 회전면에 기울기를 만든 뒤, 나아가려는 방향으로 양력을 기울여 추력을 만든다. 이는 상승하려는 힘을 기울여 전진 방향과 상승 방향으로 쪼개어 쓰는 것이다. 엔진의 힘을 직접 추력으로 전환하지 않아 연료 소모가 많으며 체공 가능 시간이 적다. 또한 로터 회전면을 기울여야 해서 로터 아랫부분에 여러 장치가 필요하다.

(라) 회전익기는 블레이드의 개수와 형태에 따라 구분되는데, 그중 단일 로터 드론은 하나의 메인 로터가 동력 장치의 회전력을 받아 회전하며 양력을 발생시킨다. 단일 로터 드론은 꼬리 부분에 작은 로터가 있어, 메인 로터가 회전하며 회전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을 이 작은 로터가 상쇄해 준다.

- ① (가): 드론의 원리                      ② (나): 핵심 장치의 종류

③ (다): 회전익기의 원리와 특성    ④ (라): 회전익기의 종류

[문 17~18]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하다  
나는 그물 잡고 아희는 빛출 가니  
뒷 뒬히 움이 튼 약초를 언지 캐려 흐느니 <1수>

삿갓에 도롱이 입고 세우중(細雨中)에 호미 메고  
산전(山田)을 훗매다가 녹음(綠陰)에 누어시니  
목동이 우양(牛羊)을 모라다가 잠든 나를 깨우는구나 <2수>

대초불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뿔드르며  
벼 벤 그루터기에 게논 어이 느리논고  
술 닉자 제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3수>

뒬혀논 새가 굿고 들히논 갈 이 없다  
외로운 비에 삿갓 쓴 저 ㉠ 늪은이  
낙디에 재미가 갑도다 눈 갑픈 줄 아논가 <4수>

- 황희, 「사시가(四時歌)」-

(나)

양파(陽坡)에 풀이 기니 봄 빗치 느저 있다  
소원(小園) 도화(桃花)는 밤 비에 다 되거다  
아히야 쇼 도히 먹여 논밭 갈게 흐야라 <춘(春)2>

잔화(殘花) 다 딴 후의 녹음(綠陰)이 기퍼 간다  
백일(白日) 고촌(孤村)에 낮툼의 소리로다  
아히야 계면조 불러라 긴 조름 씨오자 <하(夏)1>

흰 이슬 서리 되니 7을히 느저 있다  
긴 들 황운(黃雲)이 흐 빛이 피었구나  
아히야 비즌 술 걸러라 추흥(秋興) 계워 흐노라 <추(秋)1>

북풍(北風)이 노피 부니 앞 뒬히 눈이 딴다  
모침(茅簷) 찬 빗치 석양이 거에로다  
아히야 콩죽 니것느냐 먹고 자려 흐로라 <동(冬)1>

이바 ㉡ 아히들아 새해 온다 즐겨 마라  
현스한 세월(歲月)이 소년(少年) 앓아 가논니라  
우리도 새해 즐겨흐다가 이 백발이 되얏노라 <제석(除夕)1>

- 신계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17. (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르는 말을 활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고조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상승 이미지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18.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화자와 상반된 태도를 취하는 대상이다.
- ② ㉠과 ㉡는 화자가 추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는 대상이다.
- ③ ㉠과 ㉡는 현재 상황을 즐기고 있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가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대상이다.

19. 다음 중 띄어쓰기가 적절한 것은?

- ① 회사를▽다닌▽지▽6▽년하고▽3▽개월 되었다.
- ② 이번에▽우리▽중▽안▽되어도▽세▽명은▽합격할▽거다.
- ③ 선생도▽내▽뜻을▽몰라준다면▽이거▽이제▽세상▽다된▽거요.
- ④ 좀더▽큰▽새집으로▽모셔다▽드리다.

20. ㉠~㉣의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점순네 수탉(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 실뻑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나흘 전 감자 ㉡ 쪄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 데 ㉢ 썰이질을 하는 것이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번은 어떤 일인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하비고 내려오며 면두를 쪼았다. 큰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뒤로 멈찐하며 물러난다. 이 기회를 타서 작은 우리 수탉이 또 날째게 덤벼들어 다시 면두를 쪼니 그제서는 ㉣ 감때사나운 그 대강이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다.

- ① ㉠: 보기에 옹골차고 다부지다.
- ② ㉡: 일, 사건, 문제
- ③ ㉢: 공연히 조그만 흠을 들추어내어 불평을 하거나 말썽을 부림. 또는 그 불평이나 말썽.
- ④ ㉣: 역세고 사납다. 역세어서 휘어잡기가 어렵다.

[정답 및 해설]

1. ①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한글 맞춤법 제40항 [붙임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하다’가 붙은 앞말(어근)의 받침이 울림소리일 때에는 ‘-하-’의 ‘ㅏ’만 줄어들고, 안울림소리일 때에는 ‘-하-’가 다 줄어들어 표기된다. 이에 따라 ‘섭섭하지 않다’의 준말은 ‘섭섭지 않다 ⇨ 섭섭잡다’로 적어야 한다.

한글 맞춤법 제54항에 따르면 다른 형태소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것은 ‘빼기’로 적어야 하나 ‘언덕배기’는 예외적으로 ‘언덕바지’와 복수 표준어로 혼용하기 위하여 ‘언덕빼기’가 아닌 ‘언덕배기’로 적는다.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첨가하여 ‘머릿방’이라 적는다.

[오답해설]

㉔ 「1」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조금 큰 동작으로 자꾸 게으르게 행동하다, 「2」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몸이나 몸의 일부를 조금 큰 동작으로 자꾸 느리게 비비대다란 의미의 동사는 ‘몽그적거리다’라 적는다. ‘몽기적거리다’는 북한어이다.

‘엣되다’의 의미로 ‘애되다, 애띠다’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엣되다’만 표준어로 삼는다.

‘우유병’은 [우유뽕]으로 발음하지만, ‘우유(牛乳)+병(瓶)’과 같이 ‘한자어+한자어’의 구성이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㉕ 한자어인 이 단어를 ‘뇌졸중(腦卒症)’으로 오인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흔한데, 잘못된 표현이며 ‘뇌졸중’이 옳은 표기이다.

‘널판지’가 아닌 ‘널빤지’로 표기해야 한다.

‘반대말’은 [반:대말]로 발음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는다.

㉖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나 궁지’를 일컬을 때, ‘절체절명’이 옳은 것이다. ‘절대절명’은 ‘절체절명’의 잘못된 표기이다.

‘우려먹다’의 의미로 ‘울귀먹다’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우려먹다’만 표준어로 삼는다.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받쳐 ‘머릿기름’으로 적는다.

## 2. ①

[작문 - 고쳐 쓰기]

㉑은 ‘그녀가 강조한 것은’과의 호응이 적절하므로 ‘그렇이라고 주장했다’로 바꾸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㉒ ㉑의 ‘에게’는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쓰이는 조사이므로, ‘에’라는 부사격 조사로 수정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㉓ ㉑은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므로 ‘주목하게’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㉔ 그것에 대해 깨닫고 이를 자신의 경험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역접의 접속어 ‘그러나’를 인과의 접속어 ‘그래서’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 3. ②

[이론 문법 - 고전문법 - 차자 표기]

향찰은 실질 형태소를 훈차로 표기하고 형식 형태소와 고유명사를 음차로 표기한다. 따라서 ‘밝은’의 어간 ㉑‘밝-’, 명사 ㉒‘달’, ㉓‘밤’, ‘노니다가’의 어간 ㉔‘놀-’(르탈락), ‘보곤’의 어간

㉠ ‘보-’는 훈차한 것이다.

[현대어 풀이]

지문: <처용가>

동경 밝은 달 아래 / 밤 깊이 노닐다가

들어와 자리 보니 / 가랑이 넷이어라

[오답해설]

㉠ ‘東京(동경)’은 고유 명사이므로 음차하여 표기한 것이다.

4. ①

[한문 - 문법 형태소]

‘비록’에 해당하는 말은 ① 雖(비록 수)이다.

[현대어 풀이]

배울 겨를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비록 겨를이 있더라도 또한 배우지 못할 것이다

※ 참고: <송명신언행록>

한자	人 雖 至 愚 라도 責 人 則 明 하고,
따라 읽기	인 수 지 우 라도 책 인 즉 명 하고,
풀이 순서	① ② ③ ④ ⑥ ⑤ ⑦ ⑧
풀이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남을 꾸짖을 때는 밝고,

한자	雖 有 聰 明 이라도 恕 己 則 昏 이라.
따라 읽기	수 유 총 명 이라도 서 기 즉 혼 이라.
풀이 순서	① ④ ② ③ ⑥ ⑤ ⑦ ⑧
풀이	비록 총명할지라도 자신을 용서할 때는 어둡다.

5. ③

[독해 - 문학 - 현대 운문의 내용 이해]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에는 화자가 대상의 부재라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므로,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①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는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는 것에 해당하므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짐작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는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심리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④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는 화자가 ‘아프고 쓰린 때’에 수를 놓는 행위의 과정에서 ‘맑은 노래’가 된다고 했으므로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 작품에 대한 이해 참고

<수(繡)의 비밀>에서 역설(逆說)은 화자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즉 임의 부재라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현실을 부인(否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인은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드러난다. 하지만 행위의 과정에서 자기 정

화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주제적 선택이자 극복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6. ①

[독해 - 비문학 - 배치]

주어진 문장은 시가 작품들이 '의외로' 구비 문학적 요소가 강했다고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구비 문학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지문은 신라 시대의 향가와 고려속요의 사례를 설명한다. 향가는 문자로 기록되었으므로 기록 문학에 해당되지만 노래를 지어 부르거나 읊조리는 방식으로 향유된 사실이 있다. 고려속요도 뿌리가 민요에 있는 구비적 부산물이다. 따라서 두 사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① 위치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한다.

7. ④

[한자 - 한자어의 구조]

'무의미'는 '의미가 없다'의 뜻으로 '서술어[무(無)]+주어[의미(意味)]'의 결합 구조를 보인다. 또, '초음속(超音速)'은 '음속을 초월하다'라는 뜻으로 '서술어[초(超)]+목적어[음속(音速)]'의 결합 구조를 보인다.

[오답해설]

① ㉠: 불가능(不可能)    ㉡: 구시대(舊時代)

② ㉠: 신기록(新記錄)    ㉡: 반혁명(反革命)

'반혁명'은 혁명에(부사어) + 반하다(서술어)

③ ㉠: 미개발(未開發)    ㉡: 소도구(小道具)

8. ③

[독해 - 비문학 - 문맥 추론]

3문단에서 응보주의는 '범죄라는 악행에 대하여 다시 그만큼의 악행으로 대갚음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형벌의 목적에서 예방을 배제하므로 형벌은 사회 전체 고통의 총량을 증가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③처럼 악행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① 1문단을 보면 형벌의 본질에 대한 시각에 따라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벌론이 궁극적으로는 양형의 기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4문단을 보면 '오늘날 형법학자들은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공리적 목적 없이 형벌을 부과하는 순수한 응보주의 관점'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형벌의 정당화 과정에는 형벌을 통해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공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④ 4문단을 보면 응보를 기반으로 하여 범죄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예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책임 범위를 설정한 까닭은 범죄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형벌이 자행될 경우 국가가 형벌권을 무절제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9. ④

[이론 문법 - 고전문법 - 높임법]

㉔은 서술의 객체인 ‘聖宗(성종)’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특수한 어휘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현대어 풀이]

- 인의의 군대를 요동 사람들이 기뻐하니
- 성손(무왕)이 한번 노하시니 육백 년 천하가 낙양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 성스러운 어른을 모시고 저승에 가려 하시니

[오답해설]

① ㉔에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술-’을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㉓에는 문장의 주어인 ‘聖孫(성손)’을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고, 현대 국어에서도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 높임이 실현되므로 적절하다.

③ ㉔에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 ‘-이-’가 사용됐고, 현대 국어에서는 종결 표현에 의해 상대 높임이 실현되므로 적절하다.

※ 중세 높임법 참고

주체 높임법: 주로 ‘-시-’와 특수한 어휘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유사하다.

객체 높임법: 대표적으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을 통해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으며, ‘-습-’은 앞뒤의 음운적 환경에 따라 ‘-습-, -집-, -술-, -술-, -줄-’으로 실현되기도 하였다. 또한 현대 국어와 같이 특수한 어휘들이 사용되어 객체 높임이 실현되기도 하였다.

상대 높임법: 종결 표현이나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 -잇-’ 등을 통해 실현되었다.

## 10. ㉓

[독해 - 문학 - 현대 운문의 내용 이해]

시의 ‘저런 것들’은 화자의 내면과 대조적인 이미지를 지니는 것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가리킨다. ㉔의 ‘물빛’, ㉓의 ‘하얀 역새꽃’, ㉔의 ‘하얀 들국’은 모두 아름다운 자연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㉔의 ‘허연 서리’는 ‘마른 지푸라기’와 함께 임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쓸쓸한 내면을 나타낸다.

## 11. ㉔

[독해 - 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 어휘 - 성어]

㉔에서 치수는 말로는 서희에게 어미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치수의 태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을 의미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이다.

[오답해설]

① 중언부언(重言復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함. 또는 그런 말.

② 후안무치(厚顏無恥):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음.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좃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 12. ㉓

[이론 문법 - 통사론 - 올바른 표현]

‘준비를 완벽히 해 주신’의 주어에 해당하는 사람이 문장 전체의 주어와 다른데도 생략되어 있어서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는 선생님께서 준비를 완벽히 해 주신 데에 감동 받았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

[오답해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지만 발문과 무관하다.

- ① '정부 당국'과 결합한 부사격 조사 '으로'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에'로 고쳐야 한다.
- ② '보여줍니다'는 이중 피동이므로 '보입니다'로 고쳐야 한다.
- ④ '결코'는 부정어와 호응하므로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로 바꾸어야 한다.

13. ③

[독해 - 비문학 - 내용 일치]

굴절은 빛이 방향을 꺾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굴절률은 광속을 특정 매질 안에서의 빛의 속도로 나눈 값이라 하였으므로 내용과 일치한다.

[오답해설]

- ① 빛 정보는 펄스라는 불연속적인 파동들의 모임이다.
- ② 굴절률이 가장 큰 반도체에서 빛의 속도가 1/3배로 느려진다고 하였다.
- ④ 전통적인 정보 처리는 디지털 방식의 0과 1을 만족하는 신호의 세기, 극성 등을 기준으로 삼지만, 양자 메모리는 빛을 '펄스'라는 디지털 정보로 만들어 정보를 처리한다.

14. ④

[독해 - 비문학 - 내용 전개 방식]

'인간다움'의 진화에 대한 남성-사냥꾼 모델과 여성-채집자 모델의 한계를 설명한 후, 성 분업에 따른 양성 간의 전략이 상호 결합하여 '인간다움'의 진화가 일어났다는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오답해설]

- ① 초기 인류가 '인간다움'을 갖추게 된 이유와 과정이 언급되어 있으나 그것을 단계별로 탐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어떤 과정이 다음 과정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제시하면서 진화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초기 인류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들을 설명하고 있으나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인간다움'의 진화를 둘러싼 서로 다른 이론을 대비하고는 있으나 특정 이론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5. ②

[독해 - 비문학 - 내용 일치]

2문단에서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원화를 사거나 팔아 기축 통화인 미 달러화를 매각하거나 매입한다고 하였다.

[오답해설]

- ① 우리나라는 환율이 외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자율 변동 환율 제도를 택하고 있다.
- ③ 외환 시장이 불안정할 때 중앙은행에서 외환을 매입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고 하였다.
- ④ 외환 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 자금은 외환 시장 개입을 위한 원화 재원이라고 하였다.

16. ③

[독해 - 비문학 - 문단별 주제]

(다)는 '회전익기의 원리와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해설]

- ① (가): 드론의 특징과 활용 분야
- ② (나): 회전익기의 장점과 핵심 장치
- ④ (라): 회전익기 중 단일 로터 드론의 원리와 특성

17. ②

[독해 - 문학 - 고전 운문의 표현상 특징]

(가)의 <2수>에서 '깨우는구나', <4수>에서 '깊도다'와 (나)의 <추1>에서 '피었구나'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가)에는 부르는 말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가), (나)에는 상승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가), (나)에는 점층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8. ③

[독해 - 문학 - 고전 운문의 내용 이해]

㉓는 '낙디에 재미가 깊도다'를 통해, ㉔는 '새해 온다 즐겨 마라'라는 화자의 충고를 통해 모두 현재의 상황에 즐거움을 느끼는 대상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㉓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는 대상으로 화자와 상반된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㉔는 화자가 추구하는 바를 이루어줄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㉓는 화자가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19. ③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몰라주다: '알아주지 아니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다되다: 완전히 그르친 상태에 있다는 의미의 형용사

참고) 다 되다: 부사 '다'가 완성되었다는 의미로 '되다'를 수식함.

[오답해설]

①

지	의존 명사	회사를 <u>다닌</u> <u>지</u> 꽤 오래되었다. (경과한 시간)
	어미 일부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안녕하십니까. (불확실)
하고	동사	내가 회사를 다닌 지 <u>6년</u> <u>하고</u> <u>3</u> 개월이 되었다. (‘하고’ 꼴로 명사의 단독형과 함께 쓰여) ‘그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더하여’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u>2015년</u> <u>추가</u>
	격 조사	철수는 너 <u>하고</u> 닮았다. (비교, 기준)

		나 <u>하</u> 고 놀자. (함께) 사소한 <u>오</u> 해로 그는 애인 <u>하</u> 고 헤어졌다. (대상)
3 개월	아라비아 숫자 뒤에서 붙여 쓰는 것은 허용이고, 본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② 안되다: ‘안되다, 못되다, 못하다, 못쓰다’ 등의 표현에서 의미가 특수화되면 합성어로 보고 붙여 쓴다. 이 문장의 ‘안되다’는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잘되다’의 반대)’라는 뜻이므로 붙여 쓴다.

세 명: 단위 명사 앞의 수 관형사는 띄어 쓴다.

합격할 거다: ‘거다’는 ‘것(의존 명사)이다’의 준말이므로 용언의 관형형과 띄어 쓴다.

④ 좀더, 새집: 단음절어인 관형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자연스럽게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는 붙여 쓸 수 있다.

모셔다드리다: 2014년에 ‘데려다주다’의 높임말로 합성 등재되었으므로 붙여 쓴다.

20. ③

[어휘 - 고유어]

쌍이질: 한창 바쁠 때에 쓸데없는 일로 남을 귀찮게 구는 짓

[본말] 씨양이-질

㉠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율타리 엮는데 쌍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출처: 김유정, <동백꽃>

㉡ 병화는 취하지 않았으나 상훈이 생각에는 취한 것 같아서 공연히 여러 사람들에게 쌍이질을 할까 보아서 얼른 배송을 내자는 것이었다. 출처: 염상섭, <삼대>

[참고]

트집[트집] [명사]

1. 공연히 조그만 흠을 들추어내어 불평을 하거나 말썽을 부림. 또는 그 불평이나 말썽.
2. 한 덩이가 되어야 할 물건이나 한데 뭉쳐야 할 일이 벌어진 틈.
3. 아이들이 조르고 떼를 쓰는 짓.